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 song . co . kr E-mail : ejs0835@hanmail.net

은송인(恩宋人)의 정신

충효(忠孝)의 정신
고결(高潔)한 선비정신
은덕불사(隱德不仕)의 정신
송조목족(崇祖睦族)의 정신

■ 發行人/宋錫根 ■ 編輯人/宋在億 ■ 印刷人/宋富鎬 ■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上四代 享祀 및 진사공·류조비 歲一祀 봉행 전국에서 종인 약 250여명 참여

2024년 4월 18일(음력 3월 10일)은 우리 은진송씨의 오늘을 있게 한 상사대 선조님의 향사와 5세 진사공 克宇 己宇 선조님과 열부 안인(安人) 高興柳氏의 세일사입니다.

화사하고 청명한 전형적인 봄 날씨에 산과 들에는 푸른 새싹들과 함께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가운데 은진송씨 대종회 설행(設行)으로 대전 동구 마산동 추원사에서 상4대에 대한 향사를 먼저 지내고 류조비 묘소에서 류조비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봉행된 세일사에는 전국 종친회 및 대종회 임원 등 종인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상4대 향사는 직일(直日)을 맡은 첨사공파 송서호 목사공종중 회장의 상4대 선조님에 대한 설명 후 집례

(執禮) 송창공파 송구영 공사원의 엄숙한 진행으로 이어졌다.

초헌은 대종손 연안공파 송교진, 아헌은 송창공파 송용섭, 종헌은 추파공파 송중현, 축관(祝官)은 주부공파 송기수, 집사(執事)에는 연안공파 송지영, 삼가공파 송인호, 통정공파 송지영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진설(陳設)은 호군공파 송덕영이 주관하였다.

상4대 향사가 끝난 후 참제자 모두가 류조비 산소로 이동하여 류조비 묘소에서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류조비 세일사는 제관들이 질서 있게 도열한 후 쌍계당공파 송철기 직일의 세일사 선언에 이어 5세조 극기 선조님과 류조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류

조비께서는 22세에 청상이 되셔서 당시의 풍습대로 재가했다라면 오늘날 우리 은진송씨가 이같이 훌륭하게 번창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모의 뜻을 어기면서 재가하지 않고 개성에서 삼칠일을 밤낮으로 외아들 쌍청당(유윤)을 등에 업고 호랑이의 안내를 받으며 회덕으로 내려와 어려운 가운데도 가문을 위해 희생하시었다”는 설명을 마치고 창홀(唱笏)하기를 청하였다.

호군공파 송하영 집례의 창홀로 엄숙하게 세일사를 봉행하였는데 초헌은 대종손 연안공파 송교진, 아헌에는 동춘당문정공파 송용순, 종헌에는 우암문정공파 송안호, 축관에는 삼기당공파 송형현, 집사에는 연안공파 송지영, 삼가공파 송인호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진설은

호군공파 송덕영이 주관하였다.

류조비 세일사가 끝난 후 산소 옆에서 산신제를 마쳤다. 아침 일찍부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종인들께서 참석하여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하였으며 향사를 마친 후 추원사 앞마당과 실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은송의 발전을 위해 답소를 나누었다.

이날 세일사 참제에는 서울, 오산, 안성, 대구, 김천, 합천, 밀양, 경산, 청주, 보은, 천안, 논산, 속초, 무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였으며, 특히 송창공파 상서종중에서 선적지순례행사를 상사대 향사와 류조비 세일사에 40여명이 참여하였고, 송우회(은송 개인택시모임) 회원 7명이 교통안내 자원봉사를 하는 등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다.



▲ 상4대 향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 류조비 세일사 봉행 장면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식 대종회 신암 송병조(宋秉祚) 선생 동상에 헌화

은진송씨 대종회(회장: 송석근)는 2024년 4월 11일 11시 청남대(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신대리 산26-1번지)) 대통령기념관 2층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식에 참석하여 송병조(1877~1942) 제6대 주석 동상에 헌화하고 조상의 숭고한 얼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임시정부 설립에 큰 공을 세운 독립유공자 유족과 각계 주요인사와 임시정부 행정 수반 8분의 후손들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했는데 우리 은진송씨 송석근 대종회장은 신암 송병조 선생의 후손자격으로 초청되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 국민의례, 약사보고, 기념사, 축사, 헌시낭송, 독립군가, 만세삼창, 오찬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3.1운동 정신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조국독립을 쟁취한 날까지 27년간 우리민족 독립운동의 구

심체 역할을 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우리 선조 송병조 선생은 임시정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1926년 임시의정원 의장, 1933년 임시정부 재무장 및 국무회의 주석, 1934년 임시의정원 미주대표 의원 및 의장, 1941년 임시정부 회계 감사장과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독립운동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사수하는데 세운 공을 인정받아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송석근 대종회장은 은진송씨 후손으로서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감격스럽다며 송병조 선생의 얼을 되새기어 우리 후손들이 숭고한 자주독립의 정신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날 행사에는 대종회에서는 송석근 대종회장, 송태영 고문, 송인집 총무유사, 송인한 장재유사 그리고 목사공종중 송서호 회장, 송기영 총무유사, 송화영 장재유사가 함께 참석했다.



▲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참석한 송석근 대종회장, 송태영 고문, 송인집 총무유사, 송인한 장재유사, 목사공종중 송서호 회장, 송기영 총무유사, 송화영 장재유사

장학위원회 개최

은진송씨 대종회는 2024년 3월 26일(화) 11시 대종회장실에서 2024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장학위원 5명 전원(호군공파 송도영, 안소당공파 송우영, 첨사공파 송서호, 추파공파 송남섭, 부원당공파 송재강)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종회장은 장학위원회에 장학생 선발 자격조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학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심사에서는 장학금 확대방안

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자 2명 전원을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으로는 사우당



▲ 장학위원회 개최

효정공파 송주원(서울대학교 조경학과 4학년), 추파공파 송준영(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학년)이며, 4월 18일(목) 상사대 향사, 진사공·류조비 세일사 후 추원사에서 장학증서와 장학금 1백만원씩 수여했다.

2024년도 대종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류조비 세일사 봉행을 마치고 2024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우당효정공파 송주원(서울대학교 조경학과 4

학년), 추파공파 송준영(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학년)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0,000원씩을 수여하였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 자리에서 대종회장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욱 정진하여 장래의 훌륭한 포부를 실현하고 은송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참석한 많은 종인들로부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 송주원



▲ 송준영

2024년도 대전지역 성현(聖賢) 춘향제

1. 회덕향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97번 안길 126 (읍내동)에 있는 회덕향교 (전교 조만형)에서는 3월 14일(음력 2월 9일 初丁)에 석전대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초헌관에는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金洪台), 아헌관에는 회덕향교 장의 송인수(宋寅受), 종헌관에는 회덕향교 장의 송영래(宋永來), 동분헌관에는 회덕향교 장의 이영진(李永珍), 서분헌관에는 회덕향교 장의 전승원(田承員), 전사 장의 송재선(宋在仙), 집례 장의 김진서(金鎭緒), 대축 장의 유종열(柳種烈), 직일 장의 이재근(李載根), 알자 장의 송수호(宋琇鎬) 외 집사 여러분이 11시부터 12시까지 질서 정연하게 봉행하였다.



▲ 회덕향교 춘향제를 마치고

회덕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聖: 안자, 증자, 자사, 맹자)과 송조4현(賢: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 우리나라 18현(賢: 신라~설총, 최치원, 고려~안유, 정몽주, 조선~정여창, 김굉필, 이언적, 조광조, 김인후, 이황, 성혼, 이이, 조현,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 박세채)이 배향되어 있으며, 18현 중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두 분이 우리 은진송씨(恩津宋氏) 선조님이시다.

이날 우리 은송인은 송석근 대총회장과 송창공파 송환섭 대전시의원, 동춘당문정공파 송용순 도유사, 동춘당문정공파 송성빈, 추파공파 송남섭, 송인한 장재유사, 송인집 총무유사가 석전대제에 참제하였다.

2. 문충사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73번길 44(용운동)에 있는 문충사(이사장 전재환)에서는 4월 3일 (음력 2월 25일 末丁)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 각처에서 유림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초헌관에는 김용숙, 아헌관에는 안규옥, 종헌관에는 김영한, 집례 김영석, 축관 강주성 외 봉향 봉노 봉작 전작 알자 사준 직일 제생 등 집사는 먼 곳에서 온 유림으로 분방하여 보람된 수고가 있었다. 문충사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상소하고 일제의 국권 피탈에 자결한

연재 송병선을 주향으로 하고, 경술국치에 형 송병선을 따라 자결한 심석재 송병순 형제를 배향한 사우이다.

두 형제는 우암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후손으로 연재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에게 을사오적의 처단과 늑약 파기를 건의하였고, 그 해 12월 30일 석촌정사에서 고종에게 '국권회복을 호소하는' 유소(儒疏): 유생들이 연명하여 올리던 상소)를 올린 후 독약을 마시고 순국하였다.

동생인 심석재 송병순(宋秉珣, 1839~1912) 선생은 을사늑약(1905) 강제 체결 후 반대 투쟁과 함께 일제를 규탄하고 을사5적을 규탄하는 '토5적문'을 지어 전국 유림에게 배포하고 꺾기할 것을 호소했으며 1910년 한일 병합으로 국권 피탈을 당하자 1912년에 유서를 남기고 음독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송병선 선생께 건국훈장 독립장(1962), 송병순 선생

께도 건국훈장 독립장(1977)을 추서했다.

이날 은진송문에서는 송석근 대총회장, 송인한 장재유사, 송인집 총무유사, 송서호 목사공종중 회장, 송화영 장재유사, 송창공파 송구영 공사원, 사우당효정공파 송진팔 공사원, 동춘당문정공파 송용순 도유사, 송영진 총무, 송준빈 고문, 추파공파 송남섭 성균관유도회 대전분회회장, 우암문정공파 송영문 연재·심석재 선생의 현손, 송봉희 총무, 송영태 종인, 장성공파 송영래 공사원, 송애당(김경여)의 후손 경주김씨 계림군파대총회 김찬경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3. 남간사

4월 13일(음력 3월 5일 初丁)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로 53 우암사적공원 내에 있는 남간사(도유사 송인승)에 헌관과 집사 그리고 은진송씨 후손과 관내 유림 몇 분이 참석해서 조촐하게 진행하였다. 전에는 전국 유림과 관내 유림이 많이 참제 하였으나 이번 행사에는 참제자도 적고 도기소도 없고 연정국악원의 제례악 연주도 없었다.

이날 초헌관에는 은진송씨 대총회 상무유사 송유영(宋瑩永) 변호사, 아헌관에는 광산 김씨 문경공파 소종중 김형중(金亨中) 도유사, 종헌관에는 대덕구 법2동 주민자치위원 송지영(宋知永), 집례 회덕향교 장의 송인수(宋寅受), 축 회덕향교 장의 송영래(宋永來), 그리고 제 집사는 유림들이 맡아 질서있게 봉행하였다. 남간사에는 문정공 우암 송시열(宋時烈)을 주향으로 하고, 문순공 수암 권상하(權尙夏), 석곡공 송상민(宋尙敏)을 동서로 배향하고

있다. 이날 은송에서는 송인집 총무유사, 송인한 장재유사, 삼가공파 송복영 공사원, 송창공파 송구영 공사원, 송인웅 등이 참석하였다.

4. 송현서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51번길 36(원촌동)에 소재한 송현서원(원장 이종철)은 4월 23일(음력 3월 15일 中丁) 11시에 서원에 배향된 8현(賢) 후손 대표자가 참석하여 엄숙하게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초헌관에는 유성구의회의원 이희환(李羲煥), 아헌관에는 전민동노인회장 김종선(金鐘善), 종헌관에는 한국전례문화원장 권진희주(權眞希宙), 집례에 회덕향교 장의 송인수(宋寅受), 축에 김진서(金鎭緒), 직일 송구영(宋九永), 알자 유종열(柳種烈)을 비롯하여 그 외 제집사는 회덕향교 장의들이 맡아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송현서원에는 문익공 수부 정광필(鄭光弼), 문간공 충암 김정(金淨), 문충공 규암 송인수(宋麟壽), 문원공 사계 김장생(金長生), 문정공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문정공 우암 송시열(宋時烈), 충목공 죽창 이시직(李時稷), 충현공 야은 송시영(宋時榮) 이렇게 8현이



▲ 남간사 춘향제 장면

모셔져 있는데 그 중 동춘당문정공, 우암문정공, 규암문충공, 야은충현공 네 분이 우리 은송의 선조님이시다. 이날 은

송에서는 송석근 대총회장, 송인집 총무유사, 송인한 장재유사, 송성호 파유사회 의장, 동춘당문정공파 송용순 도유사, 송성빈 총보편집위원, 우암문정공파 봉곡종중 송창근 총무 등이 참석하였다.

(편집위원 송창공파 송구영)

돈암서원 춘계 제향

지난 3월 10일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돈암서원에서 2024년 춘계 제향 행사가 거행되었다.

돈암서원은 고종 8년(1871년) 전국적 서원 철폐령에도 보존된 47개 서원 중 하나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서원이다. 조선 후기(17세기 전반)



▲ 돈암서원 춘계 제향

호서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예학을 집대성하신 사계 김장생선생을 주벽으로 신독재 김집선생, 동춘당 송준길선생, 우암 송시열선생 4현(賢)을 배향한 서원으로, 4현 모두 문묘에 배향된 동국 18현이시고, 돈암서원 묘정비는 우암 선조께서 찬하시고 동춘당 선조 글씨로

세워졌다. 금번 제향에 우리 은송에선 동춘당문정공파 송용순 도유사, 송영진 총무, 우암문정공파 송안호 공사원, 송봉희 총무, 송영문, 송기호, 송장호, 송영완, 송종호 등 10여명의 후손이

참여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사계 김장생선생 묘역과 동춘당 선조 묘역을 찾아 참배 후 돌아왔다.

(자료제공:동춘당문정공파 송용순, 우암문정공파 송봉희)

<공사원 및 파유사 변경>

파명	날짜	내용
우암문정공파	2024.04.03	파유사 송영문(宋永文)을 송안호(宋安鎬)로 변경(공사원 겸직)
우암문정공파	2024.04.03	파유사 송기호(宋基鎬)를 송석근(宋碩根)으로 변경

상곡사 제향

4월 13일 대전시 동구 주산동에 소재한 상곡사(향사일:음력 3월 9일)에서 2024년 제향행사가 거행되었다.

상곡사는 조선 명종 때의 학자이자 충신인 추파 송기수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된 사우로 1955년 9월 15일 지역유림 정진국(鄭鎭國), 이규하(李圭夏)가 사우 건립을 발의하여 그 해 10월에 지역유림 모임인 향유회(鄉儒會)의 의결을 거쳐 상곡사 창건에 관한 통문이 전국 서원과 명필(名鬪)에 보내졌고 추파 사후 400여년이 지나서 후손과 지방 향유들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 상곡사 춘계 제향행사

송기수(宋麒壽 1507~1581 향년75세)는 조선 선조 때의 문신으로 호는 추파(秋坡)이다. 가평군수 세충(世忠) 선조님과 주계군(朱溪君) 이심원의 따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용모는 백설(白雪) 같이 깨끗하고 특히 귀가 커서 바라보면 신선과 같았다. 소년 시절부터 아이들과 놀기보다 선생이나 어른들과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으며 평생 학문을 좋아하여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제자백가의 책을

읽어서 두루 정통하였다. 1524년 18세 때 대사헌 채침(蔡沈)의 딸 평강 채씨와 결혼하고, 1531년(중종26) 25세때 식년 생원시에 3등으로 합격하고 진사 3등으로 합격하여 153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기사관 예문관 봉교로 승진하고 그후 강원도 어사, 충청도 어사, 홍문관 직제학, 도승지, 한성부 판윤, 대사헌, 형조참판, 대사간, 좌참찬, 이조판서, 형조판서를 역임하였으나 1581년(선조14) 75세 정월 원조(元朝)에 자제에게 명하여 세가지 유계(遺戒)를 쓰라고 하였다. 첫째 시호(諡號)를 청하지 말고 둘째 서원(書院)을 건립하지 말며 셋째 시론(時論)에 아부하지 말라고 하고 3일 무진에 정침에서 운명하였다.

선조임금은 어진 노재상이 돌아갔으니 내 놀랍고 애도하여 별도로 부의를 전하려 하니 계사를 올리게 하라 하고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조의를 표하고 제문을 내렸다. 3월에 회덕읍 동쪽 식당산 곤좌의 언덕에 장사를 모셨다.

금번 제향은 유림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우리 恩宗에선 송석근 대종회장, 송태영 고문, 송인집 총무유사, 목사공종중 송서호 회장, 송기영 총무유사, 송화영 장재유사, 동춘당문정공파 송운순 도유사, 추파공파 송계용 공사원, 송희원 고문, 송희린 파유사, 송규식 전.대종회 상무유사를 비롯하여 많은 후손들이 참여하였다.

송담공종중, 판서공종중 정기총회

2024년 2월 22일(목) 10:00부터 판서공종중과 송담공종중 정기총회가 대전 중구 선화동 대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10시부터 시작된 판서공종중(연안공,감역공,제월당문희공의 부친 판서공 國字鎔字) 정기총회에는 12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선영에 대한 묵념에 이어 감역공파 송인한 공사원의 인사말과 제월당 문희공파 송구영 감사의 감사보고, 연안공파 송지영 총무의 2023년도 결산서 내용 보고와 2024년도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이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기타 토의 사항으로 판서공 종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야유회를 금년에도 농번기를 피하여 6월초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4월 18일(음3월 10일) 대종회에서 주관하는 상4대 향사와 류조비 세일사 그리고 4월 17일(음3월 9일) 안처사공 세일사에 많은 종인들의 참석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마쳤다.

이어서 11시부터 송담공종중(판서공의 조부 柟字壽字) 정기총회가 17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호군공파 송하영 공사원의 인사말과 안소당공파 송석근 대종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연안공파 송기선 감사의 2023년도회계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제월당 문희공파 송범섭 장

재의 2023년도 결산서 내용 설명과 2024년도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참석하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이후 기타토의 시간에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있었으며 임기 만료된 호군공파 송하영 공사원의 후임으로 그동안 총무를 역임하던 연안공파 송운섭이 공사원으로 선출되었고, 총무에는 연안공파 송지영을 선출하고 제월당 문희공파 송범섭 장재는 유임되었다.

이어서 판서공종중과 송담공종중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두 종중의 임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 앉아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식사를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쳤다. (자료제공:감역공파 송인한)



▲ 송담공, 판서공 종중 정기총회 장면

호군공파 진사공종중 대종회 방문 장학성금 50만원 기탁

2024년 3월 19일 11:30 포근한 봄 날씨에 호군공파 송덕영 공사원, 송하영 파유사는 진사공종중 송도영 신임 회장과 송인선 신임 장재와 함께 대종회를 방문하여 진사공종중명의로 대종회에 장학성금 50만원을 헌성하였다.

대종회장(송석근)은 귀중한 헌성금을 가지고 방문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였고, 헌성금은 대종회 장학기금에 유익하게 쓰겠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4월 18일에 봉행하는 상사대 향사와 유조비 세일사의 제수준비와 진설(陳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대종회와 파종중간의 종중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화와 덕담을 나누었다.



▲ 장학성금 전달

<신간 안내>

송가영 시인의 「별빛 전 상서」

본촌(本村) 송가영 시인은 목사공종중 장사랑공(栢字壽字)파 후손으로 시조로부터 25세이다. 제1집 「배꽃 얼굴」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시집 「별빛 전 상서」를 도서출판 고요아침에서 출간하였다.

시인은 전남 나주 출생으로 조선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농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33년간 근무한 뒤 퇴직, 나주시 시민감사관과 나주 금성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 《열린 시학》으로 등단하였으며, 나주문협, 전남문협, 국제펜문학, 열린시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제호로도 쓰인 「별빛 전 상서」는 30여년 전에 작고하신 선친에 대한 사부곡(思父曲)이다.



▲ 「별빛 전 상서」 표지

송창공파 신대종중 “신대묘원” 사진첩 발간

송창공파 송구영 공사원은 2024년 2월 20일 신대종중의 “신대묘원(新垆墓苑)” 책자를 발간하여 2024년 3월 7일 대종회를 방문하여 책자를 기증하였다.

총 120쪽의 이 책자는 선조님들의 묘소가 옛날 장묘제도에 따라 모셔진 면적이 넓고 큰 묘소가 여러 곳으로 산재되어 있어 후손들이 제사와 별초 등의 묘소관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우선 납골묘를 조성해서 실존의 우려를 불식하고 합사를 해서 궐사(闕祀)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종인들의 뜻을 합한 것이 오늘을 있게 하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6.25전쟁때 인민군의 남침으로 모두 피난을 가서 집을 비운 사이에 산 밑에 있는 우리 부락이 미군과 인민군의 격전지가 되어 온 동네가 화마를 당할 때 우리 대소가(大小家)가 불타는 화를 입어 그때 귀중한 자료들이 모두 소실된 것을 생각하여, 오늘 조성하는 선대묘소도 기록해두어 자손들이 조상의 묘가 어떻게 합사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사진첩을 만든다

고 책자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목차는 1.은진송씨 선적 2.송창공파 신대종중 묘 이장전 사진 3.묘 이장 계획 4.묘이장 세부계획 5. 파묘전고 유제 사진 6.파묘작업 사진 7.묘 조성작업 사진 8.묘 조성완성 사진 9.자료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자손이 줄어들면서 산소관리가 어려운 현실에 조상의 산소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을 담은 이 책자가 향후 선대묘소 이장을 계획하는 종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송창공파 공사원 송구영)



▲ 「신대묘원」 사진첩 표지

대로서, 화양서원 춘계 제향

1. 대로서 춘향제

[2024. 4. 3(수) 11:00~]

• 장소:

경기도 여주시 하동 200-1

• 참석인원:

약 50명(우암문정공파 후손 15명: 송안호공사원, 송석근부공사원, 송중호, 송영무, 송영완, 송동호, 송진호 등)

• 특기사항:

정조9년(1785)에 왕명에 의해 우암 송시열을 제향하기 위하여 세운 사우로 우암에 대한 존칭으로 大老의 명칭을 붙여 “대로서”라 하였으며 여주에 머물 때마다 영릉(효종의 능)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곳이다.

고종때 전국의 사원과 사우에 대한 훼손령이 내려졌을 적에 전국에 우암을 제향했던 사우가 44개소가 헐렸으나 오직 이 대로서만은 江漢祠로 이름을 바꾸어 남게 되었다.

이 날은 봄비가 촉촉이 내려 참배객이 평소보다 적었으나 제향을 정중하게 모셨다.



▲ 화양서원 춘계제향 장면

2. 화양서원 춘향제

[2024. 4. 13(토) 11:00~]

• 장소: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 참석인원:

약 70명(우암문정공파 후손 35명: 송안호공사원, 송석근부공사원, 송봉희, 송무, 송영무, 송영남, 송장호 등)

• 특기사항:

조선 숙종(1696)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제향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전국의 사액서원중에서도 가장 이름 있고 위세가 당당한 서원이 되었으나 대원군에 의하여 폐쇄, 근년에 복원되었다.

우암 송시열선생은 효종, 현종, 숙종의 스승이자 동방 18현(賢)의 한 분으로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종묘의 효종대왕 묘정에도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은진송씨 후손과 후학들에게 정신적 지주임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율곡 이이선생과 사계 김장생선생의 학문을 계승하여 공자, 주자의 학문에 정통한 성리학의 대가이다.

우암문정공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이자 문신으로 효종대왕을 도와 북벌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주적인 정치를 펼쳤으며, 주자학의 대가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때마침 괴산군청이 주최하는 화양서원 1박2일 선비체험 행사가 진행중이어서 많은 참배객이 관심을 갖고 향제를 관람하였다.

상주 흥암서원 춘계제향

지난 4월 13일(토) 경북 상주시 원동 769에 소재한 흥암서원에서 춘계제향이 관계기관과 지역 유림, 동춘당 후손(동춘당문정공파 송용순 도유사, 송영진 총무, 쌍계당공파 송철기 도유사 등 7명)들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흥암서원은 퇴계학맥의 남인계가 주류인 영남지역에 율곡이이를 종장으로 하는 기호학맥의 적전(嫡傳)으로 평가받는 동춘당 송준길 선생을 단독으로 배향한 유일한 사액서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날 춘계제향 봉행에서는 지난 4월 2일 상주지역 유림 30여명이 동춘당 역사공원, 우암 사적공원을 방문하여 두 곳 모두 봉심(奉審)을 마친

후 해설사의 간결하고 명료한 해설을 듣고 유적을 돌아 본 상주지역 유림들은 우리 선조들의 유적을 돌아보며 한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우리의 은송의 양 선정을 다시 한 번 흠모하며 뜻 깊은 방문이 되었다고 한 상주지역 유림들을 반갑게 만나 함께 제향을 모셨다.

이들은 흥충보존회(흥암서원, 충의단, 서산서원) 회원들로 상주지역에서 노론계 학맥을 이어오고 있는 유림 단체로 상주지역 전통 유교문화 보존 및 활성화에 노력하는 단체라 하며 앞으로 후학들에게 훌륭한 우리 유교문화 전통을 이어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자료제공:동춘당 문정공파 송용순 도유사)

▲ 흥암서원 춘계제향을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주부공파 송언석(宋彦錫)



▲ 송언석 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부공파 송언석(26세손)이 당선되었다. 송언석은 1963년 경북 김천시 출생으로 은진송씨 대종회 주부공파 전.파유사인 송재곤(宋在崑)씨와 도종희 여사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

대 4학년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등고시 재정직에 합격하였으며 서울대 대학원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경제전문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 2차관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 근정포장, 2013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북 김천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국회의원 3선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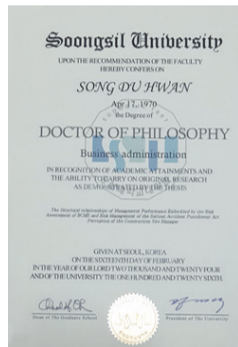
동춘당문정공파 송두환 박사학위 취득

동춘당문정공파의 송두환(宋斗煥, 1970생. 시조로부터 24世)은 부친 송용일(宋龍一)과 모친 변옥순(卞玉順)씨 사이에서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동촌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2020년 8월)를 받았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5기 신축공사현장에 근무중으로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송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세부전공 기업재난안전관리를 기수로(2023년 02월)하였으며, 동대학에서 2024년 2월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논문(논문제목:건설현장 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BCMS 위험평가, 위험관리를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예방에 관련하여 작성하였으며, 한국재난정보학회와 한국



▲ 박사학위 취득한 송두환



디지털콘텐츠학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건설안전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전문

가로서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천명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학업의 끈을 놓지 않는 성실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은진송씨의 후손으로서 가히 가문에 영광이고 종중을 빛낼 훌륭한 인재로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을 칭찬과 함께 기대한다.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業務連續性管理體系)

제월당문희공파 파보 발간

2024년 3월 22일 제월당문희공파 송인무 공사원, 송범섭 장재가 대종회를 방문하여 제월당문희공파에서 발간한 파보를 대종회에 기증하였다. 이번 파보는 1983년 참판공(13세 國字銓字)계 파보발간 이후 40여년이 지난 뒤 제월당문희공파 세보(世譜) 발간이기에 제월당문희공파 후손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파시조이며 은진송씨 3송으로 일컬어지는 조선조 대학자 제월당 문희공 송규렴(14세 奎字濂字), 그리고 대제학을 지낸 그 아들 옥오재 문정공 송상기(15세 相字琦字) 부자(父子)를 축



▲ 제월당문희공파 파보

로 후손들의 면면을 담았다.

종인들의 족적인 자손록과 문헌, 소장 문화재는 물론 미호서원 상량문을 비롯 하여 옥류각, 취백정 등 선조들의 유서 깊은 역사 터전을 모았다. 이번 파보는 제월당 탄신 393년, 옥오재 타계 300주년을 기해 숙원사업으로 발간된 점이 특징이다.

파보는 송원섭 편찬위원장과 송만영, 송구영 전 공사원 등 편찬위원들이 기획, 수단작성, 편집 및 교열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게 됐다. 특히 자손록은 색인을 통해 어린 종인들도 아버지와 본인 이름을 찾아 쉽게 조상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인무 공사원은 “후손 모두의 애정과 노고로 파보 편찬이 이루어졌다”며 “은송 각 파에 파보를 보내며 조선사 연구와 송조돈독 정신 함양의 참고자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발간의의를 밝혔다.

(자료제공:제월당문희공파 총무 송인덕)

‘송자(宋子)’라는 어원은?

자(子)는 길이길이 선생으로 남을 사 람으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유교 국가에서 성(姓) 뒤에 자(子)를 붙이는 것은 그 인물을 성현(聖賢)으 로 모신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우 암 선생을 성현으로 모셨다.

또한 間氣(간기)는 우암 송시열 선생 을 일컫는 말로써, 세상에 드문 매우 뛰어난 기품을 가진 학자 또는 영웅을 말한다.

송시열이 송자로 존숭(尊崇)된 것은 조선 후기 내내 이루어졌고 국가 차원의 높임이란 점에서 이이와 이황의 경 우와는 달랐다. 그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정조의 명에 의해 국 비로 간행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왕조실록』을 아무리 뒤져도 송시열을 송자(宋子)라고 칭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왜 송자라 했을까?

첫째, 사림대동지의(士林大同之意)라. 처음에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우리나라서 송자라고 칭했는데, 정조께서 정의를 내렸다.

정조의 어제어찬(御製御贊) 「태산교약(泰山喬嶽)」 대성양현(大星兩賢) 시(詩)에 ‘송자’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천생공자(天生孔子) 갈무주자(曷無朱子) 천생주자(天生朱子) 갈무송자(曷無宋子) ...’

「태산교약(泰山喬嶽)」이란 시(詩)에서 “하늘이 공자님을 내셨으니 어찌 주자가 없을 것이며, 하늘이 주자를 내셨으니 어찌 송자가 없을 것이냐? ... 아! 공·주·송부자의 도는 천지를 꿰고 우주의 기둥(棟梁)이 되니 세 부자 중에 한 분만 없어도 불가하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둘째, 정조께서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 저술했다.

영조 50년(1774) 정조께서 동궁(東宮)으로 계실 때 편찬한 책이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이다. 주자(朱子)와 송자 두 선생의 심법(心法)이 같은 글을 모아 그 양 현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유선(類選)해서 편찬하였다.

이 책을 편찬함으로써 정조가 우암 선생의 학문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암 학

맥이 훨씬 강세를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도통(道統)의 전수를 공자-주자-우암으로 부르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암 학파는 정통 주자학을 고수하면서 율곡 이이-우암 송시열로 학문적 적통을 만들었다. 정조는 『양현전심록』을 간행되어 한국 유학의 학통을 뛰어넘어 공자-주자-송자로 연결하여 송시열의 위치를 고양 시켰다.

예산 집성사(集成祠)와 진잠 성전영당(星田影堂) 등 ‘집성(集成)’이란 ‘집군현대성(集群賢大成)’의 의미로 공자 이후 주자, 주자 이후 송자, 즉 송시열이라는 뜻이다.

정조 19년(1795) 『양현전심록』 어제어찬(御製御贊)의 서문에서 “내 일찍 본조에 선정(先正)인 우암이 있었던 것은 송나라에 주자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했다. 대개 그들의 학술의 순정함과 규모의 공명정대함이 대의(大義)의 빛남이 해와 별처럼 밝고 성인의 도를 황무지에서 개척한 것 같지 않은 것이 없었다. 송시열이 지은 <기

축 봉사>와 <여박화숙서(與朴和叔書)>는 주희의 <무신 봉사>와 <여유 승상서(與留丞相書)>가 마음의 심법(心法)을 이었다.”라고 보았다. 글은 이시원이 왕명을 받아서 썼다.

셋째, 속설(俗說:민간에서 전해오는 얘기)에 청나라 건륭제가 우암이 청나라를 친다고 하니, 채제공에게 『우암집』을 보내라고 해서 ‘문집’을 보냈다. 이를 건륭제가 읽어보고, 이는 보통 글이 아니고 대현(聖賢)의 글이다. 가히 ‘송자’라 칭할만하다. 비록 상국(上國)을 침범할 뜻을 가졌지만, 춘추대의 상당한 글이다.

우암 선생은 학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문묘에 종사 되었고, 정치가로서는 그가 섬기고 복벌을 추진하던 효종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조야에서는 ‘대로(大老:국가의 원로, 하늘 아래 큰 스승)’라는 극존칭을 얻었고, 사문대동의 중론에 의하여 『송자대전』이라는 표제를 붙이게 되었다. 선생은 살아서는 대로요. 돌아가서서는 송자다.

(以堂記)

<산야초 이야기>

모란

옥천 청화령 고개를 넘으면 보청천이 한눈에 들어오고, 은빛 물줄기가 헤엄치듯 흐른다. 지금이야 편하게 자동차로 산을 넘지만 걸어서 다니던 시절은 만만치 않은 고갯길이었다. 구불구불 몇 굽이를 돌아 눈높이가 평평해지면 독방을 따라 녹색이 만연한 버드나무가 줄을 잇는다. 먼발치에 백화산이 우뚝 서서 바람막이를 하고 있고, 그 앞으로 넓은 들이 펼쳐진다. 야트막한 산 아래로 납작 엷드린 시골집과 그 앞에 펼쳐진 논과 밭들이 아지랑이 사이로 뿌연게 다가온다. 언젠가 내 보금자리였고, 다시 돌아야만 할 것 같은 모습들이 푸근하고 정겹다.



▲ 약재로도 이용되는 모란

빈집 같은 널찍한 마당에 들어서니 명명이가 반가워하며 펄펄 뛰다. 앙상한 호두나무는 뒤뜰 가장자리에서 잡을 지키고, 담벼락의 두릅나무순이 다 퍼서 먹을 시기를 놓쳤다. 장독대 옆의 모란꽃이 붉게 막 봉오리를 터뜨려 우리를 반긴다.

검붉은 꽃 색이 신비롭다. 이미 무성하게 자란 이파리 사이로 커다란 꽃봉오리를 내밀고 있다. 모란은 진한 붉은색으로 아주 크고 탐스러워 귀한 티를 내는 나무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모

란을 ‘꽃 중의 제일’이라고 하여 ‘꽃의 왕’으로, 부귀화(富貴花)라고도 불렀다.

크고 화려한 꽃이지만 막상 향기는 없다. 그 향기가 없는 이유는 ‘너무도 아름다운 제 모습에 눈이 먼 향기가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라는 어느 시인의 구절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선지 향기를 쫓는 벌과 나비도 오지 않는 꽃이 되어 버린 모양이다. 모란은 작약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자생하고, 키는 1.5미터 정도 자란다. 품종이 많은 나무로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 줄기는 회갈

색으로 가지가 굵다. 잎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뒷면은 흰빛이 돈다. 꽃은 4~5월경에 적색, 백색 등 다양하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한국에서는 꽃을 감상하거나 뿌리를 약으로 쓰기 위해 널리 심고 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목단(牡丹)이라고도 하며, 약용식물로 이용된다. 뿌리는 부인병에 없어서는 안 될 약재다. 두통이나 복통을 수반하는 여성의 월경불순 등에 이용되었다. 한방에서는 목단피(牡丹皮)라는 생약명으로 뿌리를 가을에 채취하여 약용한다. 각종 세

균역제, 혈압강하, 통경(通經)의 약리 작용이 있어 약재(藥材)로 이용되고 있다. 활짝 핀 꽃 모양이 어느 꽃보다도 크고 볼수록 보이며 호화롭기도 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아 관심을 많이 받았던 꽃이다. 병풍 또는 액자의 그림이나 한옥의 벽장문 등에 모란 그림이 그려진 벽장지를 붙였던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가운 햇살에 터질듯한 꽃봉오리와 탐스런 꽃이 자랑하듯 서 있다. 옆에 있는 보리수나무의 작고 하얀 꽃이 민망하기까지 하다. 연이어 피고 지는 모란꽃이 며칠 간은 적당한 이 공간을 메워 줄 것이다. 삭정이 같은 몸으로 빈 집을 지키는 아버님께 기쁨을 전할, 올봄의 저 목단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四友堂孝貞公派 鎮透)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종회 방문

2024년 3월 28일(목) 봄비가 대지를 적시는 날씨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에 소재하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고남중 부원장과 연구실장 이상균 박사, 국학진흥부장 장을연 박사, 국학진흥부 정국진 연구원이 대종회를 방문하였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충청지역 및 전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대종회 방문 장면

국에 소재한 한국학 및 유교문화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기증, 기탁받아 유물 정리, 보존처리, 전시홍보, 책자발간 등을 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문중과 선현을 선양하는 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호서지방의 명문가인 은진송씨 각파 문중에 고문서 등의 기탁제도를 홍보하여 본 기관

을 많이 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목사공중을 방문하여 송서호 회장의 중중안내와 서책을 선물받고, 이사동의 목사공(講 遙年) 선조님의 묘소에 성묘하고 사산분암 재실을 둘러보고, 회덕의 계문삼송(溪門三宋)의 한 분으로 칭송 받은 사우당 효정공(講 國澤)의 도학적

학풍과 우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봉강정사, 동로사, 오적당을 사우당효정공과 송진팔의 안내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돌아보았다.

은송의 훌륭한 선조님들의 고귀한 선비적 삶의 흔적에 깊은 감회를 받았음을 말하며 이사동에서 방문일정을 마쳤다.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 사우 (16회)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Ⅷ. 봉암서원(鳳巖書院)

1. 현황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 창건년대 : 1651년(효종2) 추정
- 사액연도 : 1665년(현종6)
- 배향인물 : 한충(韓忠) 김장생(金長生)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
- 현재 복원되지 못하고 사적비만 있음

2. 연혁

- 1651년(효종2) 한충을 배향하고 향현사라고 함
- 1662년(현종3) 사계 김장생을 추배함
- 1665년(현종6) 봉암서원이라고 사액을 받음
- 1685년(숙종11) 송준길을 추배함.
- 1721년(경종1) 송시열 추배함
- 1757년(영조33) 봉암서원 사적비 건립(윤봉구 찬, 송시열의 후손 송환성(宋煥星) 서 이규항(李奎恒)이 전(篆)하다)
- 1871년(고종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훼철된 후 복원하지 못하고 봉암서원 사적비만 남아있음

3. 인물 약전

1) 한충(韓忠 1486~1521)

조선조의 충신으로 자는 서경 호는 송재 시호는 문정(文貞) 본관은 청주이다. 아버지는 주부 향유이고 어머니는 교위 강철손의 딸이다.

1513년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직에 등용된 이래 주청사 남곤의 서정관이 되어 명나라에 갔으나 남곤과 의견이 충돌하여 미움을 받았다.

1519년 동부승지 좌승지를 역임하고,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평소 조광조와 교류 하였다고 거제로 유배되었다.

청주의 신항서원과 봉암서원에 제향되고 묘소와 신도비는 연기군 서면 고북리에 있다.

2)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조선 중기문신 학자로 자는 희원 호는 사계 시호는 문원(文元) 본관은 광산이다. 자세한 인물 약전은 종보 제188호(송현서원) 종보 제197호(충현서원) 종보 제198호(돈암서원)에 상술 되어 있다.

3)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송준길의 인물 약전은 종보 제195호(흥암서원)에 자세하게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동춘당의 예의식(禮意識)의 사상적 기반에 대하여로 기술하고자 한다.

동춘당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가정환경에서는 친가 계통보다 외가 계통이 눈길을 끈다. 어머니인 광산김씨

가 사계 김장생의 종매여서 18살 때는 사계에게 학문을 배웠고 사계가 타계한 뒤 28살 때는 사계의 아들인 신독재 김집을 스승으로 모셨다. 사계가 율곡 이이의 성리학을 계승한 대표적인 학자로 특히 호서내지 기호 예학의 종장이었고 신독재는 부친의 예학을 계승한 학자임을 상기하면 동춘당의 학통과 학문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회암-율곡-사계-신독재의 뒤를 잇는 학통에서 동춘당은 은사들이 각별히 탐구한 예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동춘당에게 주어진 과업이었고, 동춘당이 후일 호서예학과 기호예학의 종장의 위치에 오른 것은 이와 같은 환경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이 서인의 후견인 위치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동춘당 또한 후일 서인에 속하게 될 것은 예정된 것이다. 17세기 서인의 영수로서 정계를 누빈 우암 송시열이 동춘당과 같은 고장에서 일생을 보내다시피 한 동성숙질(同姓叔姪)로서 사계 밑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으므로 더욱 그렇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춘당의 품성이 원래 당과 잘 융화하는 데다가 그 시기 영남 예학의 대표적 학자 중의 하나인 우복 정경세(鄭經世)와도 연흔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동춘당의 학문의 폭은 편협할 수 없었다.

동춘당은 기호예학과 영남예학을 아울러 겸지 소통시키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였다. 사계를 스승으로 섬기던 18세에 학문 외에 사환(仕宦)의 길에도 뜻을 둔다. 동춘당은 그해 생원. 진사 시험에 응하여 합격하고 이듬해에는 생원 진사 회시에, 20세에는 별시 초시에 합격한 것은 대료에는 응하지 않았을지라도 사환으로 나아간 객관적인 자격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8세 때는 동몽교관을 잠시 하다가 곧 사임하고 귀향하였다가 그 후 몇 차례 벼슬이 주어졌으나 사양하고 취임하지 아니하고, 여헌(旅軒) 장현광, 동계(桐溪) 정온, 야은(冶隱) 길재의 유적을 찾던가 퇴계 이황 율곡 이이의 四七 이기론을 논하기도하고 연평담문(延平答問)과 근사석의 등을 교정하고 우복과 청좌와 연보를 지으면서 제자들을 모아 강론하는 학자와 교육자의 생활을 하였다. 이때부터 山林이라는 청명의 소지가 마련된 셈이고 원손(元孫)의 위호를 일찍 정할 것과 청음(淸陰) 김상헌을 불러 원손보부(元孫保溥)의 책임을 맡기도록 청한 것은 국사에 외면치 않는 모습의 일이었다.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등극하던 1649년(44세)부터 동춘당의 생활은 크게 변하여 시강원 진선(進善)을 받아 경연에 수시로 입참하여 중용을 강

론하고 사헌부 집의로 친청파인 김자점과 그 일당의 삭탈관직과 유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52세 때는 찬선(贊善)으로 성삼문 박팽년의 사당을 지어 충열의 의리 정신을 고취토록 하였고 이듬해에는 호조 참판 대사헌 이조참판을 거쳐 성균관 제주(祭酒)를 겸하였고 이 후 2년간은 병조판서 대사헌 우참찬에 올랐다.

동춘당은 관료로서 송명반청(崇明反淸)의 입장에서 효종이 기획하던 북벌에 동조하여 효종의 신임을 두텁게 하였음은 효종에게 받았던 병조판서 등 고위 직책으로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기해예송(己亥禮訟)의 기년설(暮年說)이 채택됨으로 세력을 공고히 한 동춘당은 이조판서와 우참찬 원자보양관 등의 현직 수임으로 노년을 장식하였다.

동춘당의 야인 시절에는 말할 나위 없고 관직에 종사하던 때에도 예학에서 손을 댄 적이 없고 스승인 사계의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정하였고 왕에게서 의례경전을 받으면서 왕명으로 소학언해를 교정하고 그 발문과 심경 구독을 지어 왕에게 올렸으며 오래 의절목(五禮儀節目)을 차론(筭論)하였다. 그 외에도 예에 관한 업적이 많으나 관료로서 예를 논한 국휼시백관복제의(國恤時百官服制議) 대왕대비전복제의(大王大妃殿服制議) 국장후행제시선위문안당부의(國葬後行祭時先爲問安當否議), 연복변개의(練服變改議) 승명론허목상복소차(承命論許穆喪服疏

筭) 등이 있고 친지인 사계 김장생 우복 정경세 신독재 김집 월당(月塘) 강석기 우재(迂齋) 이후원 낙정(樂靜) 조석운 우암 송시열 탄옹(炭翁) 권시 석호(石湖) 운문학 미촌(美村) 윤선거 둔촌(屯村) 민유중 문곡(文谷) 김수항 등에게 표명한 예설 들이 무려 6권 분량을 초과한다.

이로써 동춘당의 치국관이 예치(禮治)에 치중한 것과 학자로나 관료로나 치국의 가장 큰 비중을 예치에 두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그 시대의 정치가 북벌을 표방한 정치와 예치로 상징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동춘당의 행적은 그 시대의 정치를 그 시대 이념의 정당에서 이끈 것이었다.

4) 송시열(宋時烈 1607~1682)

봉암서원에 동춘당이 배향된 후 36년 만인 1721년(경종1)에 우암을 추배할 때 서원에 배향하려면 생장지(生長之地) 우거지(寓居之地) 유택지(幽宅之地)가 있거나 지방관으로 부임했는지 적거(謫居)한 연유가 있어야 하는데 서원등록 1721년 5월 13일 조에 연기현의 유생 성대령(成大齡) 등은 상소를 올려 송시열의 추향을 건의하면서 이미 여러 선현을 봉안하고 있는 곳으로 송시열의 침설 문제는 봉암서원이 신설 서원이 아니고 사액서원에 병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원 침설의 금령(禁令)과는 다른 것이라 하여 추배를 요청하여 추배가 결정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를 통하여 종인 독자 여러분께 종중의 발전을 홍보하고 은송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보의 발간을 위하여 종인들이 적극적으로 종보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사 제보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 다 음 -

1. 내용 :

- 1) 각 파종중의 회의, 행사, 재실이나 산소 정화 등
- 2) 학위취득이나 각종 시험 합격
- 3) 승진, 전보, 임관, 개업 등
- 4) 각종 미담 사례 등
-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관련 사진 첨부.

2. 보낼 곳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대중회
팩스 042-633-0531 / 이메일 ejs0835@hanmail.net

3. 연락처 : 전화 042-256-0835

[부음]



■ 추파공파故 송희동(宋熙棟)님 별세

대중회 포상심사위원이신 추파공파 지원(芝園)故 송희동(宋熙棟)님이 숙환으로 2024년 3월 7일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야은충현공파 공사원故 송중호(宋重鎬)님 별세

대중회 야은충현공파 공사원이신故 송중호(宋重鎬)님이 숙환으로 2024년 3월 10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중증을 아껴주시는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헌성금 및 장학성금 납부자 명단 (2024.2.29~4.23)

◆ 대중회 장학성금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호군공파 진사공종중 대전 동구 대흥로 500,000, 송창공파 상서종중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500,000, 송석근 대중회창 200,000, 송안호 우암문정공파 공사원 100,000.

◆ 류조비 세일사 헌성금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추파공파 천곡종중 300,000, 사)장사랑공파 양오당종중 100,000, 서울 성북종친회 100,000, 송규식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100,000.

◆ 고액 헌성금(연회비) 납부자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주영 경기 의정부시 송양로 200,000, 송성수 4월 2일 하나은행 200,000, 송덕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00,000, 송영배 인천 중구 눈들로 100,000, 송영준 대구 동구 국제보성로 100,000, 송재걸 경북 김천시 시청4길 100,000, 송진무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 100,000, 송형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100,000, 송호인 대구 서구 북바산로 100,000.

◆ 중증 및 종친회 헌성금(연회비) 납부자

● 송창공파 신대중증 240,000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구영 대전 대덕구 회덕로, 송무원 대전 서구 청사로, 송인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송인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송인서 대전 대덕구 회덕로, 송인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송인천 대전 대덕구 회덕로, 송인국 대전 서구 도안동로, 송인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송인표 대전 동구 성남로, 송인관 대전 서구 둔산로, 송인재 대전 서구 청사로.

● 모은공파중증 620,000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문호 서울 동작구 사당로, 송수호 인천 부평구 부개로, 송윤종 인천 부평구 부개로, 송영학 광주 북구 대자로, 송윤학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송유호 서울 은평구 불광로, 송주호 대전 중구 보문로, 송재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송재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송재달 경기 시흥시 신천동, 송금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송용석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송찬석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송재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송영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송영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송충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길, 송준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송희종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송동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송재균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송광호 서울 송파구 잠실로, 송재갑 서울 도봉구 노해로, 송덕호 서울 중구 퇴계로, 송형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송태진 울산 울주군 용천면 산동로, 송석호 전북 고창군 해리면, 송병호 광주 북구 반룡로, 송용호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송영대 서울 광진구 자양1동, 송영동 전북 고창군 해리면.

● 후암공파중증 940,000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찬영 전북 진안군 주천면, 송인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송종영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송인택 대전 서구 대덕대로, 송병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3길, 송석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송오영 전북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송효진 광주 광산구 신창로, 송운영 대전 서구 갈마로, 송승훈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송문영 대전 동구 가양로, 송석남 대전 서구 둔산로, 송명섭 대전 동구 합내로, 송병찬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송길영 전북 진안군 주천면, 송훈구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은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송해영 대전 서구 관저동로, 송석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송주영 경기 의정부시 송양로, 송석진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송석우 충남 서산시 동서1로, 송석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송석조 대전 유성구 죽동로, 송석열 전북 진안군 주천면, 송석범 전북 진안군 주천면, 송석금 세종 마음안로, 송석동 대전 대덕구 비래동로, 송석태 대전 동구 대전로, 송석재 서울 도봉구 해동로, 송석운 대전 서구 둔산로, 송석락 대전 서구 둔산북로, 송형종 대전 서구 신갈마로, 송민기 대전 서구 둔산로, 송석봉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송시원 서울 은평구 응암로, 송석교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 송상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 대구종친회 160,000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영기 대구 북구 침산로, 송치영 대구 달서구 장기로, 송봉환 대구 중구 동덕로, 송길영 대구 북구 노곡로, 송호동 대구 서구 국제보성로, 송대현 대구 수성구 청호로, 송인근 대구 북구 침산남로, 송철수 대구 달서구 송현로.

◆ 개인 연회비 납부자

서울특별시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민호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0,000, 송춘영 서울 강서구 화곡로 20,000, 송길영 서울 도봉구 노해로 20,000, 송달호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0,000, 송재염 서울 동작구 사당로 20,000, 송성영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20,000.

부산광역시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재일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00, 송진모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00.

대구광역시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준영 대구 남구 대명9동 30,000, 송득호 대구 수성구 동원로 20,000.

대전광역시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창현 대전 동구 계족로 50,000, 송용진 대전 중구 돌다리로 30,000.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계용 대전 대덕구 대전로 20,000, 송재룡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20,000, 송수영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00, 송선용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 20,000, 송보영 대전 중구 계룡로 20,000, 송재익 대전 중구 계백로 20,000, 송형섭 대전 중구 계백로 20,000, 송덕영 대전 중구 보문로 20,000.

울산광역시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태호 울산 울주군 범서읍 20,000, 송영태 울산 중구 용수골길 20,000.

경기도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재홍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0,000, 송인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30,000, 송규양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30,000, 송쾌영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30,000, 송현문 경기 화성시 우정읍 30,000.

강원특별자치도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종태 강원 춘천시 만천로 30,000.

충청북도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인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50,000, 송시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30,000, 송창현 충북 괴산군 소수면 20,000.

충청남도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치호 충남 논산시 연무읍 30,000, 송인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길 30,000.

전북특별자치도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귀현 전북 무주군 무주읍 30,000, 송남철 전북 익산시 삼기산길 20,000.

경상북도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인호 경북 영주시 봉화로 50,000, 송환구 경북 울릉군 울릉읍 50,000.

경상남도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상용 경남 합천군 합천읍 50,000, 송종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길 30,000, 송권호 경남 진주시 톨골로 20,000.

성명 및 주소미상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mount. Includes 송현주 3월 10일 하나은행 10,000, 송재춘 3월 20일 하나은행 20,000, 송종호 3월 26일 농협 50,000, 송광호 3월 7일 농협 입금 20,000, 송인태 4월 8일 하나은행 20,000.

헌성금 협조 안내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는 종인들께서 납부하신 헌성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뜻있는 종인께서는 헌성금 협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금 납부계좌]

-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 농협 : 351-1084-0817-03

기타안내

[지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주소 확인이 불가하오니 입금 시 독자번호와 이름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금 입금 시 대중회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대중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恩宋의 文化財 (24회) =

66. 우암 수명 유허비(尤庵 受命 遺墟碑)

- 종 목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50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 수량/면적 : 1기
- 지 정 일 : 1974. 9. 27.
- 시 대 : 1737년(영조 13)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우암로 54-1
- 소 유 자 : 정읍시

유허비는 한 인물의 자취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비로, 비가 서 있는 이터는 우암 송시열선생이 사약을 받고 생을 마친 곳이다. 우암 선생은 조선 숙종 15년(1689) 2월에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되던 중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83

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다. 그 뒤 숙종 21년(1695)에 고암서원(考巖書院)을 세웠고, 영조 13년(1737)에 이 비를 세웠다. 현재의 비각 건물은 1925년 이동한 군수가 새 단장을 한 것으로 1973년 김삼주 군수가 앞면의 흙담을 헐고 철책을 둘렀다.



▲ 유허비각

67. 고암서원 묘정비(廟庭碑)

- 종 목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81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 수량/면적 : 1동
- 지 정 일 : 1984. 4. 1.
- 시 대 : 조선후기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상평동 378
- 소 유 자 : 정읍교육청

영조 23년(1747년)에 이재(李穡)가 쓴 비로써 현재 비각 안에 보호되어 있다.

고암서원은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정읍에서 사약을 받은 후, 그 무고함이 밝혀져 숙종 21년(1695년) 사액(賜額)이 내려 세워졌으나, 고종 8년

(1871년) 철거되었다.

그 유허에 비를 세웠는데 높이 195cm, 너비 78cm, 두께 19cm이다.



▲ 고암서원 묘정비

68. 장성 필암서원

- 종 목 : 사적 제242호
- 분 류 :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 수량/면적 : 52,666.8㎡
- 지 정 일 : 1975. 04. 23.
- 시 대 : 조선 중기
- 소 재 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 379번지
- 소 유 자 : 필암서원

서원은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닦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선조 23년(1590)에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기산리에 세워졌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불타 없어졌으나 인조 24년(1624)에 다시 지었다. 현종 3년(1662)에 임금께서 '필암서원(筆巖書院)'이라고 쓴 현판을 직접 내려보내 주셨으며, 1672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1786년 사위인 고암 양자징이 추배되었다.

공부하는 곳을 앞쪽에, 제사 지내는 곳을 뒤쪽에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

廟)의 형태로서 휴식처가 되는 학연루를 시작으로 수업을 받는 청절당, 그 뒤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동재와 서재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문과 담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사당을 두고 제사를 지냈다.

청절당의 처마 밑에는 윤봉구가 쓴 '필암서원' 현판이 걸려있고, 대청마루에는 동춘당 송준길이 쓴 현판이 달려있다. 또한 학연루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쓴 것이다. 유생들이 공부하며 생활하고 잠을 자던 동재인 진덕재와 서재인 송의재 편액도 송준길의 글씨이다.

사당의 동쪽에는 경장각이 있는데, 보물로 지정된 서책이나 문서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주로 18세기~20세기 초부터 전래 된 것으로서, 당시 지방교육과 제도 및 사회·경제상, 그리고 학자들의 생활상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2019년 7월 6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 중 하나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은 소수서원(영주), 남계서원(함양), 옥산서원(경주), 도산서원(안동), 필암서원(장성), 도동서원(달성), 병산서원(안동), 무성서원(정읍), 돈암서원(논산)이다.



▲ 학연루 - 편액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이다.



▲ 청절당 - 편액은 동춘당의 글씨이다.

